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새로운 불교신행문화

14일, 전국 재가불자 1200명 첫 하안거 회향

8월 14일 오후 2시 울산 해남사에서 '재가안거 수행결사' 회향법회가 봉행됐다. 150여 명의 안거 동참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낙자(불자용 가사)를 수하고, 생애 첫 안거증을 가슴에 안았다.

불교NGO '정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회장 만초, 울산 해남사 주지)는 5월 17일~8월 14일 90일간 '재가안거 수행결사'를 실시했다.

하안거는 보름 출가수행자들이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90일간 산문 출입을 삼가고 매일 10시간 이상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전통적인 집단 수행 기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거를 재가불자들을 위한 새로운 불교수행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재가자들은 안거기간동안 각자 정한 시간에 삼귀의를 시작으로

108배나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선택수행'을 한 뒤 수행 서원문 낭독으로 하루 수행을 마무리했다. 이때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미소로 인사하고, 친화경적인 생활을 하며,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등 '7보(步)선행'을 통해 가족 및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를 수행 목표에 매일 O, △, X로 실천 상황을 기록하고, 보름에 한 번 포살법회에 참석해 주지스님으로부터 수행을 점검받았다.

지난 하안거 기간동안 재가안거 수행결사에는 울산 해남사를 비롯해 부산의 해원정사, 흥법사, 대광명사, 미타선원 등 전법도량 소속 사찰과 해남 미항사 등 전국 14곳 사찰에서 1200여 명이 동참했다.

건두리(53·법명 선덕행·경남 창원) 씨는 하안거동안 매일 새벽 잠든 가족에게 참회와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건 씨는 "평생 절에 다녔지만 스님의 법문도 일주문을 나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안타까웠다"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부처님 전에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족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니 남편과 자녀들의 삶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씨의 딸도 매일 21배를 하기 시작했다.

해남사의 최연소 동참자 김미정(21·성공회대) 씨는 취업스트레스를 내려놓기 위해 하안거에 동참했다. 김 씨는 "중간에 일주일 정도 힘든 일이 있어서 5일간 수행하지 못한 채 포살법회에 갔더니 만초 스님께서 '수행 중 망상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의도였다면 괜찮다'고 격려 해주셔서 다시 힘을 냈다"며 "90일간 나와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재가안거 수행결사는 전국 14개 사찰이 공동으로 수행정진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마련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거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하안거 수행결사에는 전국에서 1200여 재가불자들이 참가해 원만 회향했다.

만초 스님은 "기도는 바람을 부쳐님께 전하고, 명상수행에서 부처님의 대답은 나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며 "다시 칠보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의 기쁨과 깨달음을 타인에게 나누는 3가지 수행의 단계를 이번 하안거에서 배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에서 1만 여 명이 재가안거 수행결사에 동참한다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새로운 불교신행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가안거 수행결사 하안거에 동참한 재가불자들이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4일 울산 해남사에서 회향법회를 하고 있다.

며 "다시 칠보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의 기쁨과 깨달음을 타인에게 나누는 3가지 수행의 단계를 이번 하안거에서 배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에서 1만 여 명이 재가안거 수행결사에 동참한다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새로운 불교신행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복신앙에 치우치던 불교가 재가안거를 통해 좀 더 건강하고 실천하는 불교로 성장해 진정한 수행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오는 동안 5000명, 내년 하안거 1만여 명을 목표로 정했다.

박지원 기자

3박 4일간 절에서 미륵부처로 살기

대불련, 선운사·금산사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 개최



대불련 학생들이 여름수련회에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를 논하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인근·이하 대불련) 'Young Buddhist Camp'가 8월 11~14일 고창 선운사와 김제 금산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Maitreya'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불련 영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실상사 도법 스님의 주제 강연, 선운사 보물찾기, 명상순례, 별이 빛나는 문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이트레야(Maitreya)'는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륵보살을 뜻하며, 대학생불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Maitreya라는 의미이다.

11일 고창 선운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입재식에는 이번 영 캠프를 주최하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남고사 주지 원해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유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 최용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정우식 대불청 회

장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불자들에게 기대가 크다"며 "3박 4일간의 캠프기간동안 모두 미륵부처님으로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근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각자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독립유공자 합동 추모

광복 66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가 부산 흥법사에서 불교식으로 엄수됐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8월 1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4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봉행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회장 박성중) 주최, 흥법사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립군 무명용사 195만 명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와 육법공양, 진혼곡 순으로 진행됐다. 대웅보전 1, 2층 난간에는 오색 연등 대신 독립유공자 1만 2399명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현수막으로 장엄해 추모했다.

대회장을 맡은 심산 스님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광복할 만한 경제성장률과 민주발전을 이룩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독립의지와 민족자존의 정신이 우리 민족정서 밑바탕에 면면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호국영령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변영의 뿌리"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독일 의사·법관들, 한국 전통문화 '원더풀'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의사협회와 법관들의 템플스테이가 8월 9~10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됐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한국불교문화체험에 나선 독일인 30명은 새벽 기상과 함께 예불, 다도와 타종체험, 기공체조 산행(연산 내소사, 도솔암) 트래킹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체험하면서 한국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한국불교문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입식 생활이 익숙한 참가자들은 불교예절과 합장, 절가부좌 등이 어렵다고 어렵지만 자세를 취해보는 등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들은 한국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젓가락을 사용하진 않지만 먹으면서도 연신 즐거움 표정이었다. 매일 진행되는 기체조에는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즐기면서도 어



독일인 의사협회 회원들과 법관들이 8월 9~10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기체조를 체험하고 있다.

린이아들처럼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밖에 녹차밭과 차문화 체험관에서 녹차제조(윤전관, 건조기) 과정 등을 둘러보고 차를 직접 우려

내 마셔보는 등 차문화 체험에도 참가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에마 씨는 "맛있는 한국 전통 사찰음식을 맛

보아 좋았다. 무엇보다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과정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중 삼복(三伏) '자비행' 줄줄이

해인정사, 지역에 쌀 전달 영도라이온스, 삼계탕 보시



영도구노인복지관장 선공 스님(가운데)과 영도라이온스클럽 회원들.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백중 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부산 사하구청(청장 이경훈)에 쌀 108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12일 부산영도라이온스클럽은 사회복지법인 해원(이사장 원해, 전법도량 의장) 영도구노인복지관에 삼계탕데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국악예술단 '고창'과 협약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8월 12일 국악예술단 '고창(高唱)'과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노인일일, 명절행사, 연말행사 등 지역행사 진행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도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 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졸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연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

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집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집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전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매 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